

우리 나라 大學과 社會教育參與

金 容 炫
(文敎部 社會教育課長)

I. 問題의 提起

人間의 生活 즉 人生이란 끊임없는 問題의 直面과 이를 解決하는 연속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Dewey는 人生을 “自己再生過程(a self-renewing process)”이라고 보고 있다. 敎育이란 人間이 보다 體系的이고 方法論的으로 知識과 經驗을 축적하고 발전시켜 우리가 해결해야 될 課題들을 풀어 가기 위해 創出한 制度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敎育이 무엇이나를 定義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科學技術文明이 高度로 발달되고 있는 現代 産業社會에 있어서 또한 民主福祉國家를 지향하는 市民社會에 있어서 傳統的 概念의 “敎育”은 날로 그 빛을 잃어 가고 있다. Wells는 따라서 敎育을 “社會에 대한 個人的 準備”라고 정의하면서 敎育의 社會性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Dewey, Coombs 등 다른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支持되고 있으며 1950年代부터 활발히 전개되어 오고 있는 “平生敎育”의 理論的 基礎가 되었다. 현대를 第2의 科學技術革命의 時代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敎育을 단순히 학교에 나가고 시험을 치르고 卒業狀을 받는 概念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오히려 敎育을 “살과 배움(living and learning)”의 계속적인 過程으로 본다 해서 조금도 지

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筆者는 그렇다고 大學의 講義室과 研究室에서 學問과 技術의 발전을 創造하고 있는 大學 본래의 機能(traditional value)을 格下시킬 의도는 전혀 없으나, 現代社會가 요청하고 있는 大學의 奉仕(modern service) 機能을 강조하여 다른 나라의 大學과 같이 “大學의 平生敎育場化”에 눈을 돌려 우리 나라 大學의 發展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 또한 지난 年末에 國會를 통과하여 그 施行을 앞두고 있는 社會敎育法 第24條에 大學의 社會敎育 參與를 義務化시켜 놓고 있음을 볼 때 이를 대비하는 立場으로 本論을 展開한다.

II. 社會敎育 概觀

平生敎育理念의 하위체계로서 社會敎育은 대학을 포함한 학교 敎育체계가 날로 증대하는 各界 各層의 國民들이 요구하는 敎育수요에 대처하지 못하는 點, 늘어나는 財政投資 그리고 高等失業者의 增大 등을 주된 요인으로 하여, 敎育理論의 새로운 爭點으로 1950年代부터 활발해졌다. 1967년에 Coombs는 “Crisis in Education”이라는 著書 속에 그 뜻을 펼치었고, Illich는 “Deschooling Society”라는 저서를 통하여 날로 巨大化되어 가고 있는 학교敎育의 逆機能的 側面을

“hidden curriculum”으로 표현하여 그 形式性을 비평하였다.

또한 Freire는 1970년에 “Pedagogy of the Oppressed”의 저서를 통하여 학교 교육기관의 교수학습방법을 “Banking Education”이라 칭하여 그 一方性(the one way communication)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一連의 시도는 학교교육의 形式性을 사회교육의 活用을 통하여 보다 水平的이고 非形式的인 學習場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社會教育의 명칭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78년까지 인도의 영향으로 日本, 대만과 같이 “Social Education”으로 통칭하여 왔으나 '79년에 발간된 “Education in Korea”부터 “Nonformal Education”으로 번역 사용해 오고 있다. 여기서 社會教育의 몇 가지 基礎理念을 소개해 본다.

1. 社會教育의 起源(Origins and Roots)

역사적으로 社會教育의 기원은 인류역사만큼 길다. 어느 사회이건 社會的·文化的 遺産과 職業의 技能·技術은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로 전승하는 것이다. Billimoria는 이러한 일련의 교육적 과정을 土俗的 教育(indigenous education)으로 표현하여 社會教育의 起源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슬람寺院學校, 佛敎의 佛經教育 등과 같은 종교교육이 있고 傳統藝術家들이 徒弟(apprenticeship)式 교육을 이용하여 견습시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 科學技術文明을 지향하는 學者나 專門家들에 의하여는 이러한 교육방법이 소홀히 취급되어지고 있을 뿐이지 實質教育을 목표로 하는 社會教育에 있어서는 歷史的 基礎가 아닐 수 없다.

2. 社會教育의 概念(Concepts and Definition)

社會教育의 概念을 정립하기란 다른 學問보다 어렵다. 특히 社會教育은 학교교육과는 달리 實施者와 實施機關의 체계가 단순하지 못하고, 학교 교육기관 以外의 장소에서 수행되고 있는 각종의 社會教育의 活動이 널리 認識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教育이라고 하면 學校教育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認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Ward와 Dettoni는 社會教育의 用語가 “Non-formal”로 기술되고 있어서 그 自體에 不定的의 意味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社會教育의 定義에 관하여 그동안 많은 學者들과 教育研究機關에서 노력한 결과 많은 概念들이 나왔지만, 비교적 널리 受容되고 있는 개념은 Coombs의 定義이다. 즉 그는 社會教育을 “學校教育 以外의 場所에서 遂行되고 있는 모든 組織的·意圖的 教育活動”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社會教育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平生教育的 接近方法과 靑少年·成人 教育的 接近方法에 의한 논란이 거듭되어 왔으나, 社會教育法에서는 前者를 追認하여 “다른 法律에 의한 學校教育을 제외하고 國民의 平生教育을 위한 모든 形態의 組織的인 教育活動을 말한다(法第2條)”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상별로 보면 유아교육, 靑少年교육, 성인교육, 여성교육 및 노인교육이 모두 포함되는 概念이 된다.

3. 社會教育의 特徵

社會教育의 발전적 考察 및 제도적 定着을 위하여 先行的으로 인식해야 할 몇 가지 特徵은 다음과 같다.

(1) 費用(Cost): 모든 교육계획과 정책결정에 있어서 費用의 문제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社會教育은 학교교육과는 달리 費用이 低廉해야 한다. 社會教育法에서도 이를 강조하여 法第9條에 “社會教育은 영리를 目的으로 實施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社會教育은 학교수업료의 절반 以下 또는 政府의 보조금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2) 學習期間(Program Duration): 社會教育의 학습기간은 비용과 학습효과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社會教育은 가능한 짧은 기간이 바람직하며 설정된 한 학습기간중에도 몇차례의 完成教育課程을 제공하여야 한다.

(3) 要求에 基礎(Basis in Need): 社會教育은 學習者의 요구에 부응하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社會教育法 第7條는 “學習者의 必要와 實用性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4) 學習者의 參與(Participation of Learners): 社會教育은 學習者의 自發的인 參與를 유도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제도와 작성에 있어서 최대한 그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社會教育法 第5條 第2項은 “社會教育은 學習者의 自由로운 참여와 自發的인 學習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規定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5) 就業과 直結(Linkage to Employment): 社會教育은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의 課程을 履修한 후 學習者가 희망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4. 社會教育의 長點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社會教育은 그 內容, 學習者 그리고 學習方法 等에 있어서 학교교육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獨立性 있는 教育學으로 발전되고 있다. 여러 學者들이 주장하고 있는 社會教育의 長點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社會教育은 우선 費用이 低廉하다. 이는 대다수의 社會教育 프로그램이 특정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短期間으로 設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2) 教育施設面에 있어서도 단순하고 低廉한 투자가 요청되고 있는 반면에 복합적인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배려되고 있다. 또한 教育要員도 대개 正時制(part-time)나 自願奉仕者들에 의해 運營되고 있기 때문에 豫算運營에 있어서 人件費의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社會教育은 學習者들에게 졸업장 수여를 방편으로 하는 대신 그들의 實質能力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둔다.

5. 社會教育의 短點

以上の 長點을 가지고 있는 社會教育 역시看過할 수 없는 弱點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Ward는 社會教育이 학교교육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magic medicine”은 아니라고 喚起시키고 있다.

(1) 社會教育은 본래 졸업장 등의 學位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 學歷을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不利하다. 따라서 社會教育의 學習者들은 학교의 학생들보다 成就動機가 약할 수 있다.

(2) 社會教育機會의 확충은 한 나라의 교육체제를 2元化시키는 위협이 있다. 즉 학교의 학생들은 精神勞動者로 양성되는 반면 社會教育의 學習者는 肉體勞動者로 배출될 수 있는 消極的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협성이 있는 것이다.

(3) 社會教育은 아직도 연구실적이 미약한 분야이다.

Ⅲ. 社會教育과 大學의 役割

1. 大學教育概念의 變化

전통적으로 대학교육이란 學問(scholarship)의 획득·보유 및 전수로 이해되어 왔다. Lewis는 따라서 大學의 기능을 “The bearer of culture, the trainer of skills, the frontier of knowledge and the service agent”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大學의 本來機能이라고 여겨 왔던 연구와 수업란으로는 한 社會가 直面하고 있는 일상생활적 문제나 社會的 要求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난이 沸騰하게 되었다. 현대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自我實現(self-actualization)을 최대한으로 充足시키는 방향으로 意圖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종래의 대학교육개념과 機能은 변화하는 世界에 적합치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 대학은 이제 그들의 學問的인 연구활동과 교육을 大學의 담 밖에 있는 社會에 확장시켜야 한다고 Boyer는 主張하고 있다. 이러한 大學教育概念의 變化현상을 Parker는 “tradition”과 “innovation”의 葛藤이라고 보고 있다.

2. 大學의 社會教育參與 및 役割

1950年代 以來 세계각국의 많은 대학들이 社會教育, 成人教育 또는 繼續教育을 실천해 오고 있다. 몇몇 대학들은 地域社會大學(community college) 또는 開放大學(open university) 등의 형태로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른 대학들은 大學擴張教育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도 있다. 이러한 大學의 社會教育參與 현상을 Cropley는 대학이 새로운 고객의 要求를 充足시켜 주기 위하여 이미 조용한 革命(quiet revolution)”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대학의 새로운 기능은 다음 3가지로 그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1) 대학 밖에서 실시되는 社會教育 또는 成人教育活動의 지원과 공헌

(2) 대학 내에서 學校外 靑少年과 成人들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學習施設擴充

(3) 學校의 靑少年과 成人을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연구·훈련기법 등의 增進

3. 大學의 社會教育參與方案(Modality)

실로 당해영역의 專門家인 수많은 교수요원, 풍부한 경험과 연구시설 그리고 사회적 존경심이 지대한 대학의 社會教育參與는 平生教育體制 確立과 정착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社會教育法 第24條에서도 이러한 大學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 “大學·師範大學·教育大學 및 專門大學은 당해 大學의 特性에 맞는 社會教育을 實施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나라 대학들도 自願的 參與(voluntary participation) 時代에서 앞으로 義務參與(compulsory participation) 時代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이 社會教育에 參與할 수 있는 Modality를 제시하는 것은 필요한 先行作業이라 하겠다.

(1) 大學形態의 社會教育: 이는 學校外 靑少年과 成人의 高等教育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학과는 별도의 繼續教育大學을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英國의 開放大學(open university), 덴마크의 國民大學(peoples' university), 西獨의 開放大學(Fernuniversität), 日本의 放送大學 등이 있다. 우리 나라의 放送通信大學과 京畿工業開放大學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2) 프로그램形態의 社會教育: 이는 學校外 靑少年과 成人의 高等教育需要를 기존의 대학 내에서 단과대학 형태로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美國의 大學 특히 주립大學에 설치되어 있는 계속교육프로그램(continuing education program),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大學에 있는 계속교육대학(schools for university extramural studies) 등이 學歷認定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實例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梨花女大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平生教育大學”이 구체화되면 이

範疇의 실현이 될 것이다.

(3) 教育課程(curriculum) 形態의 社會教育: 이는 教員養成大學에 社會教育課程 또는 學科를 설치·운영하여 社會教育專門要員 양성과 教師의 社會教育要員化를 기하는 형태이다. 인도네시아의 教員養成大學(IKIP), 베네주엘라의 教員大學의 社會教育學科 또는 社會教育課程 등이 있다.

(4) 研究支援形態: 이는 社會教育의 발전과 효과적 실시를 위한 연구업무 수행 또는 연구소의 설치이다. 대학의 社會教育에 관한 연구업무는 ㉗ 學習者와 地域社會의 요구분석을 위한 基礎調査 ㉘ 教育課程과 教授學習方法改善 ㉙ 評價技法開發 ㉚ 社會教育과 相關분야의 博士論文과 다른 연구업무의 증진 등을 통하여 社會教育의 본질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IV. 우리 나라 大學의 社會教育參與 現況

우리 나라 大學의 社會教育參與는 1968年 梨花女子大學에서 농촌봉사활동을 學點과 연결하여 운영한 이래 괄목할 만한 伸張을 보여 現在는 30여개 대학과 전문대학이 參與하고 있다. 또한 獨立 社會教育大學인 韓國放送通信大學이 개설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京畿工業開放大學도 82年度에 개교하는 등 憲法的 平生教育理念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大學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1. 大學形態의 社會教育

우리 나라 最初의 平生教育大學으로서 韓國放送通信大學이 1972년 3월 9일 서울大附設(전문대학과정 5개학과)로 개교한 이래 1982년 2월 15일부터는 獨立 大學으로 승격되어 학사과정 8개학과와 전문대학과정 1개학과로 總定員 121,000여명의 국내 최대 규모 대학으로 成長하고 있다. 京畿工業開放大學은 產業體에 종사하는 靑少年과 成人의 계속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82년 2월 17일에 京畿工業專門大學에 부설·운영되어 오다가 1983년 3월 1일자로 獨立 開放大學으로 개편되어 51個 專攻課程에 총학생수가 1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放送通信大學과 開

放大學은 그 근거를 英國의 開放大學에 두고 있으며 放送通信大學은 주로 인문사회과학 계통의 과목을 放送·通信·出席授業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開放大學은 주로 工業分野를 모듈(module)式 教育課程에 의한 自己學習(self-learning)과 實驗·實習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京畿工業開放大學의 '83학년도 신입생 中 대학졸업자가 70여명에 이르러 學位中心(degree-oriented)의 대학교육에서 資格證中心(certificate-oriented)의 대학으로 변모하는 學習者의 實質的인 要求를 반영하여 주고 있다 하겠다.

2. 프로그램形態의 社會教育

現在 30여개의 大學·專門大學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各種 社會教育프로그램(구체적인 것은 黃宗建의 韓國 大學의 社會教育現況 참조)의 주요 학습은 未婚女性, 主婦, 農民, 老人, 새마을 運動指導者, 勞動組合指導者, 企業家 등 多様な 층을 포함하고 있다. 학습내용도 아동교육, 건강증진, 취미여가선용, 인간관계, 체력증진, 地域社會開發, 外國語, 技能文解教育, 영농기술 등 多様な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학습기간은 年 1회, 4日, 40時間, 4週, 2個月, 1年 등 다양한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運營財源은 대학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支援으로 운영하며 學習者의 부담금은 거의 무료에 가까울 정도이다. 그러나 상기의 모든 프로그램은 대학의 學點과 연결되지 못하여 學習者의 참여 및 성취동기를 크게 유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研究支援

1966年 6월에 한국교육학회내에 社會教育研究委員會가 발족되어 대학교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76年 6월에 발족된 韓國社會教育協會는 1979年度에 社會團體로 등록되어 학자, 사회교육 실시기관의 임직원 및 학생 등 社會教育에 관심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27개 단체회원과 350여명의 개인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社會團體法人 韓國平生教育機構는 81년 5월 22일자로 발족되어平生教育에 관한 세미나 개최와平生

教育院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大學附設의 사회교육연구소로는 啓明大學校의 地域社會研究所와 全北大學校 社會教育研究所(80. 10. 29)만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韓國教育開發院은 人口教育 및 社會教育研究室을 설치·운영해 오다가 '83년부터는 과제중심의 운영체제로 변경함에 따라 靑少年問題研究室로 개편되었다.

V. 課題 및 結論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1950年代부터는 產業社會發展과 이에 따른 학교교육의 限界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새롭게 등장한 社會教育은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로 活性化되고 있다. 우리 나라 대학도 이에 부응하여 상당수의 대학이 學校外 靑少年과 成人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그 參與度는 아직도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하겠다. 그리고 1950年代初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社會教育法이 그동안 7次的 試案作成과 그 폐기 내지 修正作業을 거듭해 오다가 30년이 지난 82年末에야 그 모습을 地上에 내어놓게 되었다. 憲法의平生教育理念과 더불어 社會教育法, 同施行令 그리고 幼兒教育振興法, 同施行令이 금년 중반기까지는 구체화되어 시행될 전망이어서 우리 국민은 이제平生教育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社會的 價値와 우수한 專門家集團인 우리 나라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이러한 모든 노력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앞서 제시한 社會教育의 Modality 중 아직 우리 대학에서 社會教育專門要員을 양성·배출한 社會教育學科가 설치된 대학이 없고 敎員研修課程에도 社會教育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形態의 社會教育도 동과정울 이수한 學習者에게 學點을 인정해 주어 大學教育을 逸失한 기회를 補償해 주는 方案도 體系化되어 있지 못하다. 大學의 社會教育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敎職員의 社會教育과 국민의 繼續教育需要에 대한 이렇듯 증진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